



태블릿PC와 만나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에서 공감매거진 〈共zone〉을 넘겨보세요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해 발간하는 소통매거진 (共ZONE)을 이제 앱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재이든 Jayden 경북 포항시 신흥동 ● 미국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은 유학생인 전 '나의 취업 성공기' 속 토코 씨의 인터뷰 를 보며 설레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토코 씨처럼 고 민이 많았거든요. 그 분 이야기가 꼭 제 이야기 같아 크게 공감했어요. 한국어 실력만큼은 자신 있는 저도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겠죠? 앞으로 〈공존〉에서 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정보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As a foreign student wishing to find a job in Korea, I was flattered by the interview with Mrs. Toko in 'My Successful Employment Story' and also was able to regain my confidence. I have to say that I had similar concerns just like her. Her story seemed to be like my story, so I couldn't agree more. I would be able to succeed in employment since I'm confident in my Korean language proficiency, wouldn't I? I hope to see more employment information in the future in (Gongzone) for foreign students.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 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윤나영 Yoon Na Young 서울 강남구 신사동 • 한국

오, 〈공존〉이 확 달라졌네요?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온 〈공존〉을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봤어요. '공존 초대석' 속 외국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외국인 친구들에게는 큰 공감을, 한국인인 제게는 신선함을 주었답니 다. 다음 호에는 예능대세인 샘 해밍턴 씨도 만날 수 있을까요? 나날이 멋있 어지는 〈공존〉의 다음 호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Oh, (Gongzone) has had a make-over I guess? I read (Gongzone) which has returned with more abundant stories, together with my foreigner friends. In the 'Coexistence Invitation Corner', Korea, seen through the eyes of foreigners was sympathized greatly by my foreigner friends and presented me with something new. Can we expect to see Sam Hamilton, the rising star, in the next volume? I'm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volume of (Gongzone) which seems to be improving day by day.

> 산타 추실 Santha Chusil 대구 남구 대명동 • 태국

'테마리뷰'에 소개된 외국인 봉사자들의 따뜻하고, 친절한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멋진 삶을 살 아가는 그분들이 진짜 천사가 아닐까요? 이전까지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도 한국어가 서툴러서 자신 없었는데 그분들과 함께라면 걱정 없을 것 같아 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ภาพลักษณ์ที่ใจดีและอบอ่นของอาสาสมัครต่างชาติทั้งหลายที่ใด้แนะน ำใน "เทมารีวิว" นั้น ดูแล้วดีจริง! ค่อยช่วยเหลือเพื่อเพื่อนบ้านที่อยู่ใกล ถกทอดทิ้งพวกเขาเองที่เปรียบเสมือนนางฟ้าของจริงที่ใช้ชีวิตที่น่าชื่นช มช่วยเหลือสังคมเกาหลีใม่ใช**่หรือ? ถึงแม**้จะอยากทำอาสาสมัครแต่ก็ใม่ มีความมั่นใจใ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ที่พูดใม่ค่อยเป็นเลย ถ้าใด้มีส่วนร่วมกับพ วกเขาก็คงใม่กังวลเรื่องนี้ ขอบคุณสาหรับข้อมูลดีๆ.

메이즈 梅子 경기 파주시 금천동 • 중국

경복궁 옆에 이렇게 재미난 동네가 있는 줄 몰랐어요. 역사적으로도 사연이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서촌 내용이 좋았습니다. 골목은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이색 여행지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 인과 가족이 오면 제가 유능한 '한국골목 가이드'가 되어 함께 여행할 수 있게 〈공존〉에서 멋진 풍경과 여행 정보를 많이 담아주세요.

过去不知道景福宫旁还有这么有趣的村子。有着历史渊源,美 食、景观丰盛的西村内在无穷。胡同似乎是可以如实体验韩国人 生活与文化的特色景点。请大家〈共存〉上多多留下在优美的风景 和旅游信息,以便朋友和家人从中国来时,我可以担任能通广大 的"韩国胡同导游"。

> 김성민 Kim Sung Min 서울시 관악구 인허동 • 한국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음식을 맛보고, 평가하는 'K-Food 특공대'를 정말 재 미있게 봤어요. 중국과 대만에도 족발과 비슷한 요리가 있다니 신기하네요. 각국의 요리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어요. 또 맛 평가단이 얼마나 생생하고 맛을 평가하는지 기사를 보는 동안 입안에 침이 다 고였답니다! 앞으로도 〈공 존〉 외국인 맛 평가단의 활약을 응원할게요~.

'K-Food Special Force' where foreigners personally tasted and evaluated the Korean food was really fun. I was surprised to know that there was food similar to pig trotters in China and Taiwan. It's interesting to compared the food of various countries. Moreover, the taste evaluators assessed the food so lively that my mouth watered as I read the article! I'll continue to support the foreigner's taste evaluation in (Gongzone) in the future~.

COVER STORY

한국 사랑에 빠진 글로벌 가족

여름호 표지 촬영에 참여한 알렉세이 가족의 한국 사랑은 남다릅니다. 한국어를 능 숙하게 구사하는 아버지 알렉산더 바바스킨(우크라이나) 씨, 러시아문화센터원장 으로 국내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는 어머니 김안나(고려인 3세) 씨,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알 렉세이까지! 한국생활 17 년째에도 변치 않은 한국 사랑을 말하는 이들은 조금 은 특별한, 글로벌 가족입

- 02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04 공존의 窓 캐나다 'Multiculturalism Day'
- 05 Editor's Message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Better day! Together day!
- 08 Theme Focus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 10 Theme Site 제6회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
- 14 Theme Guide 체류외국인 사회참여 및 사회기여 유도 정책
- 18 Theme Interview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
- 22 나의 취업성공기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 누엔티빛타오
- 24 Dream 충전소 외국적동포가정 2세 알렉세이 군
- 26 GO! 골목산책 다이내믹 시티, 부산 '남포동'
- 31 한국생활가이드 한국생활 속 과태료 & 범칙금
- 32 K-FOOD 특공대 직장인 3인방의 콩국수 맛 체험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 38 WOW 출입국탐방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 42 친절바이러스 친절은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된다
- 44 출입국 News 2분기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46 출입국 Q&A 재외동포 & 외국인 투자자 체류
- 47 Thank you Letter 한국 무더위에 적응 중인 에티오피아 연수생들에게



계간 〈共Zone〉 2013 여름호 통권 제30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 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3년 8월 | **발행처**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경기 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더쎄븐파트너스 Tel 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 02-462-8980

※ 계간 〈共Zone〉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 go.kr)에서 PDF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 특별한 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매년 5월 20일 개최 되는 한국의 '세계인의 날'처럼,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모인 캐나다에서는 매년 6월 27일을 'Multiculturalism Day'로 정하여 다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Multiculturalism Day'에서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세계인이 함께 어울리며 자신들이 캐나다를 움직이는 힘찬 동력임을 자축했습니다. 다른 뿌리를 가진 사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한국'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사진 제공 Peterborough.ca

크게 바라보고 넓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주세요.' 올해 6회째를 맞은 '세계인의 날' 행사의 슬로건입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치러졌습니다. 그동안 매년 5월 20일 당일에만 정부 주도의 기념 행사 위주로 치러졌던 것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세계인 주간(5월 20일 부터 일주일간) 동안 전국적으 로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기에 각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각종 다문화 관련 행사를 '세계인 주간'과 연계 진행하여 '세계인의 날'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많은 국민이 다양한 나라의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준하였습니다. 지방사무소별로 지역 특성을 살린 현장 중심의 다문화축제를 통해이민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장이 마련되었고 사회적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나아가 이민자와 관련한 통합적인 이민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세계인의 날' 행사와 같은 소통과 공감의 시간은 무척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위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는 보다 큰 시각으로 바라보고 치우침 없는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며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的名性

To be broad-minded and far-seeing...



"Enrich Korea with Your Dreams!"—this is our slogan celebrating the Sixth Together Day of 2013. This year's Together Day celebration held a special meaning for us. Until this year, the Together Day was celebrated annually on May 20 as a government-led commemorative event. However, starting this year, the Together Day was celebrated outside the box, with the kaleidoscope of activities throughout the country marking the Together Week of Korea, designated as the one week beginning May 20.

Various multicultural events were hosted by the local and regional governments throughout the country during this period. By connecting these events to the Together Week, we ensured that Together Day is not a one-time event, but an opportunity for increased cultural receptivity for all, by all. The multicultural celebrations hosted by the local immigration offices brought out the distinct colors and qualities of each region, while serving as a place for harmony and fellowship. In these days, we are witnessing increased demands for not only general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but also for increased social tolerance for cultural diversity and integrated policies with regard to immigrants. Given such atmosphere, I believe that the value of our fellowship and shared appreciation through the Together Day celebration is greater than ever.

As we keep this spirit of celebration, Korea Immigration Service extends its promise to expand its horizons while creating balanced, fair immigration policies, moving 'Toward an Open and Harmonious Society'. Furthermor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continue to be at the forefront of creating a shared Korea, a land of hope and happiness for both for immigrants and nationals alike.

BETTER DAY TOGET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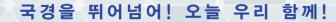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약 한달 간 크고 작은 행사가 전국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한데 어울려 이야기하고 웃는 동안,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안대환 목사가 재한외국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야기 등 150만 재한외국인과 조화롭게 성장하는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을 여름호 특집으로 담았다.

1 THEME FOCUS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02 THEME SITE 제6회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

THEME GUIDE 체류외국인 사회참여 및 사회기여 유도 정책

 1
 THEME INTERVIEW

 1
 제6회 세계인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자, 안대환





우리 모두를 위한 축제, '제6회 세계인의 날' 개최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차관과 주한필리핀대사, 주한캄보디아대사 등 역대 최다 8개국의 주한외교사절과 20개국의 영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재한외국인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세계인의 날을 축하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을 뿌리뽑는 원년으로 삼는 한편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가 나서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 범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 지원을 전담하고, 결혼이민자 가정폭력사건 처리절차 지침을 수립해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의 의사를 제대로 파악할 것이며, 국제 결혼안내 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대표와 김혜순 계명대 교수는 다 문화·외국인정책 분야에 몸담아 사회공헌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을 수상하는 등 16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으며, 법무부·안전행정부·새 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모전' 입상자 24명이 수상했다.

화합의 시대, 희망을 보여준 무대 퍼포먼스

가슴을 울리는 웅장한 북 울림으로 식전 행사가 시작되었다. 모듬북, 태평소, 바이올린 등 각기 다른 음색을 내는 악기가 하나의 소리를 냄으로써 '화합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공연이 기념식 내내 펼쳐졌다. 그 중 '꿈의 씨앗, 찬란한 꽃을 피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기념식 세레모니는 이날 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했다. 법무부장관 등 주요 내빈 17명이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무대 위에 마련되어 있던 꿈의 씨앗을 거치대에 함께 심자, 각 나라의 국기와 꽃 이미지가 동시에 무대 위 LEC 패널에 나타나고 어린이 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에 실려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가 행사장을 가득 채워지는 장관을 연출. 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기념식이 마무리될 쯤에는 다문화 어린이들로 구성된 '레인보우 합창단'이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며 가야금 반주에 맞추어 함께 아리랑을 부르는 행사로 채워졌다. 무대 행사와 더불어 외국인 사진전, 세계 음식 및 세계 꽃 등 국가 상징물을 전시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해 행사에 참석한 외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법무부는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열린 자세를 갖게 하는 뜻깊은 계기를 제공하였으며,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였다.

Together Day!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5월 20일부터 한달 간 전국에서 세계인이 모여 소통하는 크고 작은 행사가 열렸다.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한데 어울려 이야기하며 웃는 동안,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하는 소중한 추억이 만들어졌다. 그 중 인천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인천자유공원에서 성대한 잔치마당을 벌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세계인의 날' 축제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전날, 비 예보가 무색하리만큼 날이 화창했던 6월 1일 인천자유공원. 상설무대 아래 곳곳에서 전통의상을 곱게 차려 입은 외국인들이 모여 들었다. 행사시작을 알리는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흘러나오자 덩실덩실 외국인들이 멋진 춤사위를 선보였다. '세계인의 날' 축제는 오늘 이 한 장면으로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박춘배 인하대 총장,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한 네팔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주요 내빈은 세계인의 날을 맞이한 외국인들에게 축하인사를 건넸다. 외국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터치 버튼을 누르자 무대 위 박이 터졌다. "당신의 꿈으로 대한민국을 물들여 주세요"라고 적힌 현수막이 푸른 하늘 아래 힘차게 펄럭였다.

볼거리 먹을거리 풍성한 축제 마당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우듯 현장에는 다 양한 체험행사와 함께 외국인들을 위한 12 개의 지원전담부스를 설치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법률상담 부스'에는 인천출입국 일일 이동상담센터가 마련되어 외국인들이 채류, 사증, 국적 등 출입국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받을 수 있었고, 변호사 김태진과 박소영 부부가 일일 법률상담사를 자청, 근로계약, 가정폭력 등의 상담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의 '외국인범죄 예방상담 센터', 간단한 의료상담 및 진료가가능한 인하대 의료사회봉사단의 '무료 진료소' 등 전문 분야별 부스도 마련되었다. 이날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부스는 국가별 음식체험존 부스였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해 각 국가별로 설치된 부스에서 자국 민들이 마련한 전통요리를 선보였다. 두 이들과 함께 축제를 찾은 와일 라샤 (요르단) 씨도 이날 처음 맛본 필리핀 디저트, 마하블랑카에 푹 빠져버렸다고. "코코넛밀크 맛이 나는 게 정말 맛있네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맛있는 세계 요리도 먹고, 외국인 친구들과 신나게 어울리니 제법 흥이 나는데요?" '캐리커처 그리기' 부스에는 자신의 얼굴을 독특한 일러스트로 남기고픈 아이 들의 줄이 이어져 결국, 대기표를 나누어 줄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공원 곳곳에 자리를 펼치고 앉아 물감을 손과 얼굴에 묻혀가며 그리기에 열중 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부대행사로 마련한 '청소년 다문화 그리기 대회'에 참여한 부모와 아이들로, 사전 신청만 500여 명이 넘었을 정도로 그 인기가 뜨거웠다. 대회 후 심사를 통해 법무부장관상 1명, 인천광역시장상과 교육감상 각 3명, 출입국관리사무소장상 10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축제 같은 하루가 열려요!"

"서계인의 날' 축제에 매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데 올해는 유난히 신나네요! 외국인 친구들과 한국인이 한자리에 모여함께 즐기는 동안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올해를 놓치셨다면 내년에는 꼭 참석하세요. 한국체류 17년 차 선배의 조언이랍니다.(라나)"

"물디브'는 알아도 '몰도바'는 잘 모르시죠? 이런 축제날에는 꼭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와 고국 문화를 알리고 있어요. 저도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구경하며 즐기고요! 꼭 놀러 오세요~. (비오리카)"

오른쪽부터 라나(우즈베키스탄), 비오리카(몰도바)



하루 종일 진행된 축제 참가자들의 무료점심 제공을 위해 인천 제2교회 등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2,000명분의 자장면을 즉석에서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무료 자장면을 받기 위하여 일렬로 선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늘어졌음에도 모두가 즐거운 표정을 짓는 모습에서 이보다 더 풍성한 축제는 없는 듯 보였다.

장기자랑 무대는 내가 접수한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장기자랑대회! 인천공향출입국 음악동아리 '조 인밴드'와 마술공연이 먼저 무대에 올라 관중들의 마음을 훔치며 분위기를 한 껏 달구었다. 뒤이어 우즈베키스탄 3인조 여성팀이 인기곡 '어머나'를 여유 있 게 소화하고, 5인조 댄스그룹 '필리핀걸'의 격렬한 댄스가 이어지자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졌다. 인하대 유학생들로 구성된 하얀연꽃팀은 '라콩의 핏 줄'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웅장한 북소리, 꽃부채춤 등 화려한 볼거리와 스토리 가 있는 무대를 선사하기도. 장기자랑 참가자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한국에 오게 된 사연, 한국에 와서 겪었던 웃지 못할 경험담 등 각기 다른 이야기보따 리를 풀어놓으며 관중과 마음을 주고 받았다. 덕분에 '세계인의 날' 축제는 관 중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던 관중뿐 아니라 무대에 선 사람에게도 색다른 경험 과 잊지 못할 추억을 심어 주었다. 이날 베트남 전통 복장을 멋지게 차려 입고 무대에 올랐던 팜티휀장(베트남) 씨는 공연을 마치고도 여운을 쉽게 떨쳐내지 못했다.

"저희 공연에 이렇게나 호응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공연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수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죠. 평소에는 부끄럼이 많아서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나서지 않지만 '세계인의 날'이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인하대 다문화교육전공 수업을 함께 듣고 있는 친구들과 빛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용기 내봤어요. 도전해 보길 정말 잘했네요."

행사 중간, '행운의 추첨권'을 뽑아 소정의 선물을 주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었는데, 현재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울알테둘체 코라존(필리핀) 씨에게 200만 원 상당의 대형냉장고를 받는 행운이 돌아갔다.







"오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친구들과 함께 축제장에 왔는데 제게만 이런 행운이 찾아왔네요! 집 냉장고가 너무 작아서 한국에서의 첫 여름나기가 고민이었는데 덕분에 싹~ 해결됐어요. 냉장고에 큰 수박을 넣어 두고두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이날 장기자랑 대상의 영광은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요르단 등 11개 국가에 서 온 외국인이 팀을 이룬 '우리는 하나'에게 돌아갔다. 팀명처럼 하나가 된 듯 팀원들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강남스타일'의 절도 있는 군무를 보여준 점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꾀코리? 뀌고리? 받아쓰기 고수를 찾아라

현장에서 즉석 신청을 받아 수십 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한국어 받아쓰기 행사도 진행됐다. '아시아', '날씨' '맑음' 등 받아쓰기가 어려운 문제가 연이어 출제되었는데, 시민이 즉석에서 낸 '꾀꼬리'로 우승자가 가려지는 등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축제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불볕 더위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한 김창석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올해 행사는 국민과 외국인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 위주로 구성했다"면서 "세계인의 날 행사가 국민과 이민자간의 사이를 좁히는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역사회 주민과 이민자가 한자리에 모여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라고소감을 밝혔다. 이날 재한외국인과 국민은 '우리'라는 이름으로 한데 어우러져 '세계인의 날' 축제를 즐겼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준비하고 있는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의 모습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사회참여 UP! 사회기여 UP!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이 확 달라집니다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will be drastically
changed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외국인투자 유치다. 출입 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우수 인재의 국내 체류편의를 제 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일조해 왔다. 그 결과, 해외기업 및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투자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외국인투자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도입 및 부동산투자이민제 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Attracting foreign capitals is as important as overseas business expansion of domestic companie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contributed to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by making the visa application procedure more convenient for foreign investors and foreign talents in Korea.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major increase in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 investors in Korea, including both corporate and individual investors. Furthermore, since May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iversified investment product types and introduced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to attract foreign capitals through introducing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and improving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Part1.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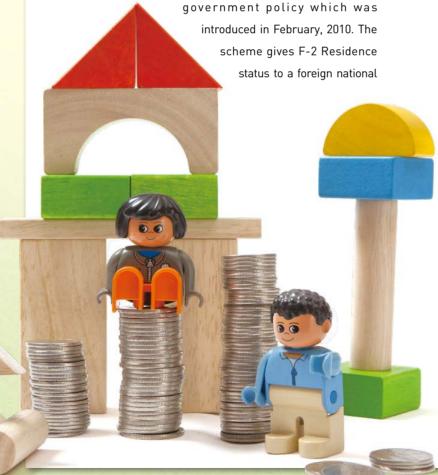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부동산투자이민제가 궁금해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하고, 5 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3년 5월 1일부터 현행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 등의 투자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하였다. 법무부가 발표한 이번 완화 기준은, 기존 투자기준 금액을 낮추는 한편 부동산 투자대상을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을 강화한 것이다.

What i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is a



who has invested a minimum investment amount in holiday facilitie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and grants him/ her F-5 Permanent Residence status after 5 years of investing. In order to stimulate local economies through attracting foreign capital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lowered the minimum amounts of investment for Pyeongchang Alpensia and Incheon Free Economic Zone while expanding investment product types that the investors can choose.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strengthened the foreign investment environment by reducing the minimum amount of investment and adding more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s, thereby, giving more options to foreign investors

어떻게 달라졌나요?

현행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지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 평창 알펜시아 지역의 투자기준 금액을 허향 조정하고 투자대상을 확대하였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영종지역)의 경우,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고려하여 당초 기준금액을 15억 원으로 하여 지정·고시하였던 것을 인천시 의견 등을 반영하여 7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청라지구와 송도의 골프장 내에 건설 예정인 빌라를 투자이민적용 대상으로 포함하여 투자상품을 다양화하였다.(이전에는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 별장, 관광펜션만 투자대상으로 한정)강원도 평창지역의 경우, 투자기준금액을 10억 원으로 지정·고시하였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어 여수, 제주지역과 같은 수준인 5억 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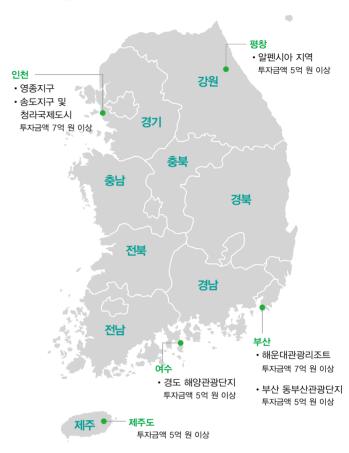
또한 5월 20일부터는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 산투자이민제 적용대상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투자기준 금액은 각각 7 억 원. 5억 원으로 정했다.

How is it change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lowered the minimum amount of investment and expanded the investment products for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and PyeongChang Alpensia. For instance,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 for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 (Youngjong area) has been lowered from 1.5 billion KRW to 700 million KRW in order to prevent the real estate market in capital areas from becoming hypercompetitive. Also, within the Incheon Free Economic Zone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iversified investment products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

* 2013.7 기준



by including places such as Cheongna area and villas in golf resorts of Sondo where a real estate speculation rarely occurs. (Previously limited to holiday condominium, hotels, cottages, tourist pensiononly only)

In case of PyeongChang, Kangwon-do,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 was initially designated and announced as 1 billion KRW, however, since the investment track record is almost nonexistent, the minimum amount of investment has been lowered to the same level of Yeosu and Jeju, which is 500 million KRW.

From May 20th, 2013, the Busan Haeundae Area and the East Busan Tourism Complex are newly designated as investment products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and the minimum amount of investments for these regions are 700 million KRW and 500 million KRW respectively.

14 | 共zone 2013 Summer

Part2.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는 무엇인가요?

공익사업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금 또는 공익사업에 5억 원 (단.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 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이민정책상 혜택인 영주(F-5)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법무부는 외자를 유치하여 중소기업 지원 및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 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를 위해 지난 5월 27일부터 공익사업투자이민제를 시행하고 있다.

What i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is another government policy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giving F-5 Permanent Residence status to a foreign national who has deposited/contributed 500 million KRW (300 million KRW for immigrant retirees who are age 55 or older) in public business for 5 years.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since May 27th this year in order to prepare necessary funding for smalland-medium businesses and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for underdeveloped areas, to create jobs and stimulate local economies



투자 유형은 어떤 방식인가요?

(원금보장·무이자형) 법무부가 위탁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 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예치된 금액은 중 소기업에 저금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손익부담형) 법무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정 · 고시하는 낙후지 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상기 기준금액 이상을 출자하는 방 식으로. 낙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현재 영주, 안동, 예천의 4개 사업)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현재 영암 해남. 태안의 2개 지구)다.

What are the investment types?

(Principal Guaranteed Investment * Free Interest) Foreign investors invest a minimum amount of investment in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Fund which is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Foreigners will deposit the minimum amount of investment in the fund established by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whereas the deposited fund will be given to small-and-medium businesses as a loan at a low interest

(Risk-Based Investment) Foreigners will make a monetary contribution to a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 for an underdeveloped area, which is designated/announced/agreed upon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other relevant ministries. Underdeveloped areas refer to the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for New Development Region' (4 projects in Youngju, Andong, Yechun as of now)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New Development Region Nurturing Investment Promotion 」 as well as 'Tourist Enterprise City' (Youngam, Haenam, and 2 districts in Taean as of now)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Act on Enterprise City Development _I.

해외 투자자 위한 장기적 정책이 있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투자이민협의회를 설치하여 투자이민 제도 적용 대상과 투자기준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부처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물론, 해외 투자자들의 장기체류를 돕는 각종 제도를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투자자가 공익사업투자이민제 대상자로 선정되어 거주(F-2)자 격 또는 영주(F-5)자격 심사 시, 투자기간 또는 투자금액을 합산 적용하 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투자 기준금액이 5억 원인 경우 관광펜션 구입에 4억 원을 투자하고 1억 원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 했다면 거주(F-2)자격이 부여된다. 또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이 3년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간이 2년이면 총 투자기간 이 5년 이상이므로 영주(F-5)자격이 부여된다.

Is there any long-term policy for foreign investors?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planning not only to continue to discuss detailed standards for applicable real estate areas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and for the minimum investment amounts with other relevant ministries but also to introduce various policies to help foreign investors stay in Korea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addition, when a foreign investor applies for F-2 Residential or F-5 Permanent Residence statu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take his/her combined investment periods or investment amounts into consideration in his/ her favor as a policy benefit. For example, if the foreigner purchased a tourist pension at 400 million KRW and 이민제도

공익사업투자

deposited 100 million KRW in the fund of the Korea Finance Corporation, he/she will be granted F-2 residence status. Moreover, if the foreigner has invested in the investment products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Real Estate for 3 years and of the Immigrant Investor Scheme for Public Business for 2 years, he/she will be granted F-5 permanent resident status since the combined total of investment periods is 5 years.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 투자 및 영주자격 취득절차

원금 보장 무이자형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사전심사

₫ 투자금 납입/확인서발급 한국정책금융공사

⑤ 거주(F−2)자격으로 변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⑥ 영주(F-2)자격으로 변경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부담형

단기사증 또는 무사증

사업지역 개발사업자

② 투자상담/투자조건 등 협의

❸ 사전심사 사업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무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여부 확인

④ 투자계약체결/ 투자금 납입/ 투자환인서 발급

사업지역 개발사업자

※ 투자방법, 계약조건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투자금등납입

사업지역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⑥ 영주(F-2)자격으로 변경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17 16 | #zone 2013 Summe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그는 1998년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개설한 이후 현재까지 위기에 처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재기를 돕고. 외국인근로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 다. 이주노동자와 국민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따뜻한 한국을 만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현하고 있는 안대환 이사장이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서창석** 사진 **서찬우**

"우리는 모두 존중의 대상이죠" 코리안 드림의 밑바탕도 그렇게 가꾸고 싶어요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



약점을 이용해 선교한다는 것은 치졸한 일

'모든 사람은 인종과 언어, 국기를 초월하여 존엄성을 갖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의 홈페이지(www. komf.net)를 열면 기장 먼저 눈에 띄는 문장이면서 재단의 정체성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경안시장 안에 있는 한국이주노동재단은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 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재기를 돕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들에게는 문화체험행사와 한국어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등을 통해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 고 있는 NGO 단체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1998년. 그는 현재 전국이주민지원단체 연합회장도 맡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온 친구가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다가 한국에서는 밤 인사를 어떻 게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가르쳐주었더니 저에게 '안녕히 죽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웃어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때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나머지 삶을 외 국인 친구들을 위해 살라는 뜻으로 들렸던 겁니다."

외국인근로자쉼터를 설립하여 우리 사회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함께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었지만 안대환 이사장은 목사의 신분이었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였다. 하지만 안대환 이사장은 각자의 종교적 신념은 쉽게 건드려서도 안 되고. 섣불리 침해해서는 안 되는 불가침 영역이라는 보편적인 논리 앞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불교나 이슬람교도가 상당수여서 공격적 선교는 자칫 충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선교활동을 한다는 것도 치졸한 일이고, 제 스스로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그런 비인권적인 행동을 한다 는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의 다양성과 각자의 종 교적 신념에 대해 인정하고 중간자의 입장에서 그들과 마주합니다. 값싼 도움으로는 결코 종교적 신념 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돌봐줄 피붙이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타국 땅에서 위기에 처한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된 안대환 이사장은 실직한 외국인에게는 취업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픈 이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며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었다.



어떤 문화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중의 대상

처음에 문을 열었던 외국인근로자쉼터는 2008년 한국이주노동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금까지 그곳을 찾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수가 연인원 1만여 명을 상회할 정도로 수많은 외국인들이 제집처럼 재단을 들락거렸다. 특히 실직을 당했거나 마땅한 거처가 없는 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도 재단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인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나 국민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어느 것이 열등하다거나 우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문화이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중의 대상입니다. 사람 역시 어느 나라에서 왔더라도 차별받거나 달리 평가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돌뵈줄 피붙이도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타국 땅에서 위기에 처한 그들의 '비빌 언덕'이 된 안대환 이사 장은 실직한 외국인에게는 취업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이픈 이에게는 안식처를 제공하며 다른 기관과 수시로 연계하여 치유와 회복을 도와주었다. 임금 또는 노사 문제나 출입국과 관련한 상담을 하면서 법률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 외국인근로자와 기업이 상생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주들을 초청하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외국인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행사와 한국어교육, 다문화부부 합동결혼식, 외국인을 위한 위로잔치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하여 사회통합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2010년부터 얼마 전까지 '사랑의 열매'로부터 지원을받아 16명의 무연고 외국인 사망자 장례식과 더불어 유골을 본국으로 보내주는 의미 있는 일도 했다. "경기도 광주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외국인노동자들이 정말 다양한 문제를 안고 우리 재단을 찾아옵니다. 저를 비롯한 NGO 단체가 나서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제도가 개선 ·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고용주를 비롯한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간답게 살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악조건 속에서 힘든 일을 하며 돈을 벌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코리안 드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이 늘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더 구체화된 외국인정책이 생겨났다. 어떤 정책이든 국익을 고려하여 거시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정책의 역사는 아주짧다.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고용주나 한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근로 자를 자기중심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들은 거시적이기 어렵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외국인정책을 통일화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역할이나 기여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

1998년 한국이주노동재단 전신인 외국인근로자 쉼터 개설, 15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에 앞장서 왔다. 광주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장을 역임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기여를 공로로 인정받아 지난 5월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의 쉼터, 한국이주노동재단!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험탐방

한국이주재단을 찾는 외국인근로자들 과 함께 정기적으로 전국 곳곳의 문화 유산을 탐방하는 기회를 마련해, 한국 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 생활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한국이주재단은 2011년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주 월, 수요일에 요가교실을 열어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했다.



합동결혼식을 올려주었다.



'사랑의 열매'에서 지원을 받아 2010 년부터는 장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무료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례 후 유 골은 본국에 보내주고 있다.

• 다문화부부 합동 결혼식 주최

경제적 형편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

리지 못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들을 위해 지난 15년간 매년 12월 25

일. 약 30쌍의 다문화부부에게 무료



•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권장

2010년부터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체류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이주노동재단 연혁

 1998년
 5월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개소

 2003년
 3월
 외국인근로자 쉼터 개소

 2005년
 2월
 한글학교 개설

 2006년
 12월
 외국인근로자 위로잔치

 2007년
 3월
 컴퓨터교실 개설

 2007년
 8월
 외국인근로자 하계수련회 (충남 몽산포)

 2007년
 12월
 외국인근로자 합동결혼식

 2008년
 4월
 광주지역 유관기관 외국인근로자지원 민관간담회

 2008년
 6월
 한국이주노동재단 설립

 2009년
 7월
 노동부 실직 외국인근로자

돌봄기관 선정

록 정책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대환 이사장의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인력수 급 시스템에 비추어 외국인근로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하여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인력이 유입되도록 검증을 철저히 하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가 외국인근로자 편만 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욕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이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 공한다지만 그건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고, 외국인 역시 주거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막상 그 안에서 과로사나 돌연사, 질병 등이 발생하면 국가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비용은 스스로 지출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인간답게 살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번 돈의 90%를 자국에 송금한다는 것은 근로자 개인적으로도 큰 불행이고, 국가적으로도 문제인 것입니다."

전에도 진행형이었듯이 내일도 계속 진행형

자신의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잠식당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안대환 이사장이 예쁘게 보일 리 없고, 그의 도움을 받은 외국인들도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안대환 이사장은 이주노동자와 국민이 조화롭게 상생하는 그날을 위해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를 실현하고 있다. 국가는 안대환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숭고한 뜻을 높이 사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늘 어렵고 급박한 상황의 연속이라 상황에 따라 살이왔는데 수상을 하면서 걸어온 길을 정리해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15년여 동안 늘 진행형이었듯이 내일 그리고 모레가 되어도 계속 진행형이겠지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대의를 위해 희생하는 안대환 이사장 같은 봉사자들이 있기에 우리는 '전보다 좋아 졌다,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



누엔티빛타오 씨는 2011년부터 전북 익산시청 다문화지원부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의 한국인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보람찬 직장을 성취하기까지 타오 씨에게는 두 가지가 큰 힘이 됐다. 그녀의 적극적인 도전 의지와 남편의 든든한 지원이다.

남편의 지지와 적극적인 마인드로 위기 극복

지금은 백만불짜리 미소를 지으며 유창하게 민원인을 대하지만 타오 씨도 결혼 초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건 2007년부터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는데 모국에서 전공하며 익힌 한국어는 생활언어와 다른 점이 많았고 지역 사투리는 더 알아듣기 어려워 답답했죠." 거리에 나가면 자신을 결혼이주여성으로 경계하며 바라보는 시선도 타오 씨에게는 견디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급기야 집밖 외출까지 꺼리는 상황이 되자 그녀의 남편이 타오 씨 손을 잡고 밖으로 나서게 됐다고.

남편의 지지와 독려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컴퓨터와 요리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인근 경찰서를 무작정 찾아가 통역시를 자처하기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활발하고 적극적이었던 원래 성격을 점점 되찾았다. 심지어 출산예정일을 3일 앞두고 전주에서 국제교류 서포터즈 통역봉사단원 찾고 있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간 일도 있었다. "당시 인터뷰 중이던 사진을 보면 배가 남산만 해요."라며 함박웃음을 짓는 타오 씨. 그녀의 열정이 통했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법원이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에서 그녀에게 행사 통역을 의뢰하는 일이 잦아졌고,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국적 취득 절차에 필요한 증명서 번역일을 맡게 되었다. 마당을 박차고 나와 보니 자신의장점이 사회 곳곳에 필요한 걸 알았고, 이후 하루 하루가 즐겁고 기뻤다. 타오 씨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도 이 당시 근무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험 덕분이었다.

이주여성의 정착 돕는 '든든한 다리'되어

다문화 활동경험자 우대라는 채용조건은 타오 씨에게 유리했지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컸단다. 면접 전날까지 타오 씨는 그동안의 활동 내용과 익산시 다문화가정 수, 지원정책과 현실적 어려움 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철저히 준비했다.

"다문화지원부서 업무 특성상 결혼이민자 출신이 눈높이를 더 맞출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에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 꿈이 이

취업 준비 노하우

욕심보다는 성실함이 먼저 취업을 하고 싶다면 우선 한국어가 능숙해야 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이 있는데 현재 대학이나 회사, 공공기관 지원시 자격 기준은 4급이에요. 이 정도면 말하기와 쓰기에 능통한 수준이죠. 자녀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어는 빨리 배우세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성실한 자세라면 취업에 성공할 겁니다.

나만의 장점 살리기 지역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다누리 http://www.liveinkorea.kr)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을 위해 네일아트, 재봉, 요리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정보도 제공합니다.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다국어 상담사 양성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으니 취업도 하고, 이주여성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면 참여해 보세요.



루어져 지금은 결혼이민자들의 의사소통을 도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신세대 답게, 보다 쉽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온라인에서도 적 극 활동 중이다. 얼마 전에는 한국 생활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한 이주여성의 글을 우연히 접하고 곧바로 그 가정을 찾아가 당사자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 상담사를 연결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익산시청에서는 〈익산생활 알고 나면 쉬워요〉를 발간했다. 입국에서부터 출산, 육아 등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으로, 타오 씨의 경험을 모아 만든 실용서다.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해당 기관에 직접 찾아가 일일이 확인하며 6개월이나 공을 들였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부모님들에게도 가이드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과정이었지만 보람을 크게 느낀 일이었죠."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타오 씨. 그녀가 바라는 대로 한국사회에서 인정받는 당당한 전문 여성으로 거듭나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소년! 초록빛 그라운드를 누비다

"GOOD, 알렉세이! 자세는 벌써 축구선순데?" 코치의 칭찬이 이어지자하얀 얼굴에 미소가 크게 번졌다. 장래 축구선수를 꿈꾸는 알렉세이(11)에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6월의 서울. 폭염주의보가 예보된 한낮의 축구경기장에서 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소년이 눈에 띈다. 'FC서울-서울시 다문화 축구교실'에 참여 중인 알렉세이는 수업이 시작되자 코치의 말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한다. 코치의 설명에 따라 뒤꿈치를 들고 발 아래 촘촘히 놓인 장애물 사이를 재빠르게 통과하는 그모습이 대견했다.

"2주 전부터 'FC서울-서울시 다문화 축구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킥, 패스, 드리블 등 축구 기본기를 쌓을 수 있어서 전보다 실력도 늘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시간이 더 지나면 고난도의 축구 기술도 알려주신대요, 어서 빨리 배우고 싶어요." 축구 이야기를 할때면 천진난만한 미소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치 선수처럼 진지해진다.

8살 때, 누나 따냐의 방에 걸린 포스터 속 데이비드 베컴(David Beckham)의 모습에 반한 다음부터 축구선수를 꿈꾸게 되었다는 알렉세이. 부모님을 설득해 집 근처 사설 축구교실에서 1년이 넘도록 활동할 정도로 축구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그라운드에 서면 느끼는 긴장감이 너무 좋아요. 특히 공격수가 슛을 쏘지 못하게 막는 순간, 그 느낌은 정말 최고예요. 1년 전에 출전한 구리시 지역대회에서도 수비수로 나서 공격수를 잘 막았어요!"

꿈을 키워주는 매니저는 든든한 가족

알렉세이의 축구 실력도 보통은 넘지만 수영 실력도 수준급이다. 또 피아니스트를 꿈꿀 만큼 피아노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얼마 전부 터는 드럼 수업도 시작했다. 열한살 소년 알렉세이는 알록달록한 무 지개 만큼이나 욕심도, 꿈도 많다. 물론 든든한 가족의 후원이 있기 에 걱정도 없다. 우크라이나 대학교에서 만나 사랑을 키운 고려인 동포 김안나(고려인 3세) 씨와 알렉산더 바바스킨(우크라이나) 씨, 그리고 14살 터울 누나 따냐는 늘 알렉세이의 꿈을 응원해 주는 든 든한 팬이다.

"수업을 마치고 동네 놀이터에서 아빠와 특별 수업을 자주 해요. 패스 훈련도 하고, 철봉 매달리기 같은 것도요. 제 손에 굳은 살이 잔뜩 배어있죠? 훈련이 힘들 때도 있지만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라 너무 행복해요. 오히려 연습 시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생활이 익숙하지만 아직은 어린 나이다. 한국생활 중에 고민은 없을까. 러시아대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알렉세이의 교실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인 친구 외에도한국인 친구 '치호'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데, 종종 치호나 다른 한국인들과 이야기할 때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단다. 그때마다 누나의 도움이 컸다고.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던 누나가 조언을 많이 해줘요. 지금은영국에서 유학 중이라 전화로 제 고민을 들어주고 있죠. 저는 아직도한국어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건반을 연주하는 스트라이커를 꿈꾸는 알렉세이가 올 여름방학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2년 전에 축구경기장에 직접 가서 FC서울 경기를 봤어요. 그때 온 가족이 함께 응원했거든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축구장에 가서 응원팀이 승리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



FC서울-서울시 다문화 축구교실 ●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Future of Seoul'과 서울시는 협약을 통해 지난해부터 다문화 아이들에게 무료로 수업과 축구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인 AT빌바오 유소년 총감독 출신인 끼께 감독이 구성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내 인조잔디구장에서 매주 2시간여의 주말 수업이 진행된다. 다 문화가정 자녀들이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어 놀면서 또래 친구들과 쉽게 친구가 되고, 학부모들 역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등 참여율과 반응이 뜨겁다.

입단 문의 02-376-3945(FC서울). 단 모집 대상은 서울 거주, 만 $6세\sim13$ 세 다문화 자녀로 제한.

GO! 골목산책 부산 남포동 글 서창석 · 박지수 사진 서찬우







people who want to express their individuality can find unique pieces of clothing and accessories, without being bombarded by brand names.

If you feel hungry after shopping, then head over to the food street, where you can choose from a wide range of affordable dishes that are priced between 2,000 and 3,000 won per serving such as bibim-dangmyeon (seasoned cellophane noodles), yubu-chobap (seasonedricewrappedinafriedtofub ag), and chungmu-gimbap (gimbap with seasoned squid). Suffering from heat exhaustion? Then, feel refreshed with some homemade patbingsu (sweet iced dessert with red beans, rice cake, etc.) at the patbingsu street.

Bupyeong Market, famous as a can market!

From the west of the International Market, cross the street to head over to the Bupyeong Market, which is also known as the can market for having been a large distribution center of canned goods from abroad. It still sells imported foods and clothing even to this day although not as much as in the past.

Bupyeong Market is also famous for its generous merchants as well as the soup street lined with restaurants serving soups made of diverse ingredients such as pine nut, sesame seed, pumpkin, mung bean, bean, and millet. A bowl

BIFF Square with attractive taste and style!

The Nampo-dong street tour begins at the BIFF Square, where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kes place annual. It is surrounded by some 10 theaters including CGV Nampo, CINUS Busan, and Daeyoung Cinema Town. Some visitors even feel overwhelmed by the fact that they are walking the streets that were once graced by famous actors, actresses and film-makers from home and abroad during the BIFF period in October. Imagine the joy of finding the name of your favorite actor, actress or director while looking through the countless handprints left on the ground.

Another thing you must do when you go to the BIFF Square is to try the various street foods. The 'SsiatHotteok (pancake filled with brown sugar filling),' introduced by the host and regular guests on the popular TV show 'Infinite Challenge' on MBC as well as Lee Seung-gi from the KBS show '1 Night 2 Days,' is so popular that people line up for nearly hours to purchase them. There are at least 20 types of snack that are delicious yet cheap such

as the flat dumplings and fishcake. Walk around the BIFF Square to choose among the nationally famous restaurants with years of history and traditions in serving traditional dishes of Busan such as naengchae-jokbal (pork hock with chilled vegetables), milmyeon (wheat noodles) and hoeguksu (noodles with raw fish).

The International Market, full of mystery!

When you cross the Gwangbok-ro on the north side of the BIFF Square, you will get to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background behind its name was that the merchants here, who were refugees during the Korean War, traded smuggled goods from overseas and the military supplies from the foreign forces. Today, at the International Market, frequented by both Koreans and foreigners alike, are filled with unique goods that are hard to find elsewhere. It is also regarded as a 'mysterious world' with specialized streets such as the glasses street, shoes street and bag street, and has narrow and winding streets lined with clothing stores that are bound to make the fashionistas go on a spending spree. This is where the truly stylish





Must-east Dishes in Busan!



Doeji-gukbap (Pork Soup with Rice) • Doeji-gukbap served in Busan contains plenty of pork in the meat broth that was heated for long hours to ensure long-lasting rich and savory flavor. Eat a bowl of doeji-gukbap with kimchi or kkakdugi! It will not only be filling but it will also delight your taste buds.



Bokguk (Blowfish Soup) • Blowfish, which is known to be a poisonous fish, turns into one of the best detoxifying foods when it is prepared properly by a specialized cook. Blowfish soup may not appear appetizing to some, but once you have a taste, you'll be addicted to its deep, savory flavor.



Milmyeon (Wheat Noodles) • During the Korean War, refugees from the northern provinces began making the indigenous dish of their hometown area, Naengmyeon (cold noodles). The process of making milmyeon is similar to naengmyeon, and guite differ in terms of flavor, they are both tasty.



Hoe-guksu (Noodles with Raw Fish) • 'Halmaejip Hoe-guksu (Granny's noodles with raw fish)' seasoned with red pepper paste does not need side dishes to go with it! It is so spicy that you'll gasp for air and try to ease the pain in your tongue with some anchovy soup, yet it's so addictive that you will go back for more!



Fishcake • One of the iconic specialty foods of Busan is, of course, 'BusanEomuk (fishcake).' It is made with generous amounts of fish, which results in a rich flavor that differentiates it from the fishcakes produced in other regions. It is affordable, delicious and nutritious! How can you not love it?



Patbingsu (Iced Dessert Treat with Red Beans and Rice Cake) • Patbingsu sold on the streets of the International Market is neither expensive nor fancy-looking, but it is regarded to be one of the best patbingsus available in the country. It's because of the using red beans that she personally st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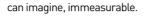
28 | #zone 2013 Summer 29



The more you live, the more you like it!

Christopher is a 'newbie' in Busan, having been here for only 8 weeks! "Busan first appears too busy and complex, but the longer you stay, the more you realize how it's so beautiful and charming. Above all, I like Busan because of the kind people."

Christopher, who recalled his experience of enjoying the view from the Yongdusan Observatory, overlooking GamcheonVillage and Nampo-dong, seems to have fallen in love with the city of Busan. When asked about his favorite eats, he explained the samgyeopsal (barbecued pork belly), bean sprout and kimchi combination. We hope he continues to discover the beauty of Busan during his stay!_Christopher Majava (22, Sweden)



Imagine the joy you'll feel when you find the book you just needed or when you see a familiar title in the pile that exudes that old book smell... Being at the bookstore street of Bosu-dong with an air of antiquity will bring back memories from childhood as if you're traveling back to the past.



The last part of the Nampo-dong Tour is the Jagalchi Market, located right next to the sea. There, you can take a look at the boats returning from a day of fishing as well as the large ships that are entering and leaving the Busan Port. After a long day of touring around the Nampo-dong area, re-gain your energy with a hearty meal of fresh raw fish and seafood or other various dishes offered by the surrounding restaurants.

We recommend you head over to the Busan Tower Observatory at the Yongdusan Park in time for the sunset. There, you can enjoy the beautiful view of the Busan Port and the downtown area and the colorful nightview of the city lights with the appearance of embroidered jewels will make your jaw drop. If you want to see the night view of Nampo-dong up close, then go to the observatory located on the rooftop of Lotte Department Store Gwangbok Branch, but hurry because it closes at 8 p.m..

The Nampo-dong Tour will allow you to enjoy the unique experiences only offered in Busan as you walk along each street with its distinct appeal, and all your five senses will be satisfied with many things to see, feel, eat and experience.





of soup is plenty enough to feed more than one person, but because it's so delicious, some people order more than one for themselves.

Bupyeong Market also contains a street lined with restaurants serving fishcake, considered a specialty food of Busan. You can try the fishcake for free, but you will definitely regret it if you just settle for one bite!

The Bosu-dong Bookstore Street!

To the north of the Bupyeong Market is Bosu-dong, where one can find the one and only 'bookstore street' in Korea. This area which has an air of antiquity contains some 50 bookstores selling a wide range of used books from comic books and children's books to reference books, technical books and foreign books.

Some of these books were recently published, while some are rare books and others are discontinued. Since they are used, they are sold at lower prices than they would've been if they had been new, but the value of these books are, as you

한국생활가이드



생활 속 과태료&범칙금!

규칙도 지키고 내 지갑도 지켜요

> 나도 모르는 사이 규칙이나 법을 어기고 있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생활에 유익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과 태료[過怠料]란, 행정상의 규칙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로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반면 범칙금[犯則金]은 위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대신 일정 금액을 내 어 처벌을 대신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01 공공환경을 해치는 주범 노상방뇨

많은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노상방뇨.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대소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합니다. 무심코 침을 뱉는 행위 또한 노상방뇨에 해당하여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02 즐거운 술자리, 마무리도 깔끔하게

음주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음주뿐 아니라 인근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행위에도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니 나의 즐거움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03 운전자도 보행자도 함께 지켜야 할 교통규칙

교통 범칙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신호·지시위반 및 속도위반은 대형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합니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및 방송시 청을 한 경우는 범칙금이 아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모든 교통수단 이용 시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04 공공장소에서 흡연은 Say~ NO!

대부분 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흡연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요. 금연 구역에 서의 흡연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 또한 금연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시로 확인이 필요한 체류 관리 과태료

불법체류 시, 과태료

1개월 미만 : 100만 원1~3개월 미만 : 150만 원

• 3~6개월 미만 : 200만 원 • 6개월~1년 미만 : 400만 원

1~2년 미만: 700만 원
2~3년 미만: 1,000만 원
3년 이상: 2,000만 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미신청 시, 과태료

• 3개월 미만: 20만 원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20만원 이상~30만 원 미만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0만 원 이상~40만 원 미만

• 1년 이상: 40만 원 이상~50만 원 이하

외국인등록증 재신청 불가 시, 과태료

3개월 미만: 10만 원3개월 연체 시: 50만 원1년 연체 시: 200만 원

* 이 정보는 기준사항을 토대로 하여 개인상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인바랍니다.

31

(문의 전화: 국번없이 1345)

여름이 되면 한국 음식점 메뉴판에는 '콩국수'가 추가된다. 쫄깃한 국수에 뽀얗고 고소한 콩국물을 부어 먹는 콩국수는 삼복더위에 입맛을 돋우고, 온 종일 땀을 흘리느라 지친 심신에 활력을 충전해 주는 별미다. 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콩을 재료로 쓰기에 그 자체가 건강식이기도. 과연 외국인들 입맛에 콩국수는 어떤 느낌일까? 평소 건강한 식생활을 즐기는 직장인 셰릴 린(미국, 37) 씨, 아비드 핫산(파키스탄, 29) 씨와 마틴 윌러(미국, 33) 씨의 콩국수 체험 현장.

걸쭉한 콩국물.

쫄깃한 면발의 조화



"콩국물 자체만으로도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평소 건강하고 바른 먹거리에 관심이 많다는 셰릴과 마틴, 그리고 아비드 씨는 콩국수를 먹으며 연신 감탄을 내뱉는다. 한국 전통음식은 자연친화적이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자 주 찾는다는 이들이 오늘은 한국의 여름철 대표 별미, 콩국수 체험평가에 참여했다.

한국생활이 8개월째라는 셰릴 씨는 채식주의자. 친구들을 따라 몇 번 콩국수를 먹어본 후로 자주 콩국수를 먹게 되었단다. "한국의 밥상은 채식 위주의 식단이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채식주의자가 먹기에도 좋아요. 특히 콩국수는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식으로 인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에도 제격이죠."

유기농 식단에 관심이 많은 한국생활 3년차 마틴 씨도 콩국수를 먹어본 경험이 있다. "여름에 팥빙수 다음으로 많이 찾는 음식이에요. 얼음을 띄운 시원한 콩국물을 마시면 여름 더위도 식히고 몸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아주 맑아집니다."

한국에 온지 2년 8개월째인 아비드 씨는 콩국수의 국물이 고향에서 유명한 음료 라씨 (Lassi)와 비슷하다고 말한다. 라씨 또한 파키스탄 여름철 대표 음료라고. "라씨에 주로 소금을 넣어 먹는데, 콩국수에도 소금을 넣어 먹으니 더욱 고소하고 맛있네요."

누구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고집하는 이들에게 우리 땅에서 자란 국산콩으로 정성들여 만든 콩국수는 어떤 맛이었을까? ♣



별점 ★★★★★

세릴 린 • 한국생활 8개월(미국, 37세)
채식주의자인 저에게 콩은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 원이에요. 평소에도 주로 두부나 콩을 통해서 단백 질을 보충하기 때문에 맛에 민감한데, 콩국물이 진 하고 부드러워서 좋은 콩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 어요. 부드럽고 목에 걸리는 것이 없어 콩국물만 따 로 마셔도 될 만큼 시원하고 깔끔하네요.



増점 ★★★★★

아비드 핫산 • 한국생활 2년 8개월(파키스탄, 29세) 처음 콩국수를 먹을 때는 심심하고 비린 맛이 났는 데, 오늘 다시 먹어보니 고소하고 부드럽네요. 국물 에 얼음이 띄워져 있어 끝까지 시원하게 먹을 수 있 어서 좋아요. 이슬람 교인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에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데, 콩국수는 그렇지 않 아서 여름마다 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



별점 ★★★★★

마틴 윌러 • 한국생활 3년(미국, 33세) 국수에 올려진 오이채와 검은 깨가 먼저 식욕을 자극하네요. 건강한 음식을 자주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오늘 좋은 콩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먹을수있어 기뻐요. 쫄깃한 면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국물 때문에 바닥이 보일 때까지 다 비웠네요. 담백한콩국수로 입맛을 되찾았어요.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의 코리안 드림 "따뜻한 정(情)이 큰 용기를 줍니다"

한국의 자유, 그리고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쟁에 참전한 그들의 용맹함과 인류에는 한국전쟁의 전설로 남았다. 세월이 흘러 그 후손들이 한국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 땅을 찾았다. 손에 총을 쥐고 한국 땅을 밟았던 아버지들을 대신해 후손들의 손에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전쟁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16개국 유엔군 중 네 번째로 많은 6,000여 명이 참전한 나라이기도 하다. '강뉴부대'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전쟁 터에서 용맹을 떨쳤던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는 강원 양구·철원 등에서 전투를 벌였으며, 그 가운데 122명이 숨지고 536명이 부상했다. 한국에서 처음 눈을 맞았다던 그들. 한국의 강추위를 견디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큰 공을 세우고, 고국에 돌아갔다. 하지만 1974년 이후 고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대적 차별을 받아 그후손들까지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참전용시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한국정부가 공로를 잊지 않고자 그 후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에티오피아 참전용사후손 직업역량배양사업'의 첫 발을 디뎠다. 지난해 12월 27일, 총 60명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 전북, 충북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에 20명씩 분산 배치되어 한국어 교육(2개월) 및 취업 교육 (6개월)을 받고 있다. 용접배관, 전기, 전자, IT, 건축, 자동차, 봉제 등 다양한 기술 연수 및 한국 기업체 취업지원, 귀국자의 본국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그들이 에 티오피아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스마트 코리아의 명성! 출입국심사부터 다르네

법무부도 참전용사 후손들의 코리안 드림을 응원하기 위해 참전용사 후손들의 국내취업 및 국내체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6월 19일 참전용사 후손 20명을 인천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초청했다. 후손들의 한국생활을 격려하고, 선진화 된 인천공항출입국 업무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후손들이 행사장에 도착하자 최문식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손수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의 말을 전했으며,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직접 챙긴 수저세트도 함께 전달했다. 이후 준비된 홍보동영상을 보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주요 업무와 인천국제공항의 최첨단 감식 업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면서 본격적인 견학이 시작되었다. "한국인은 물론 등록 외국인(영주, 기업투자 체류자격)



은 미리 여권을 등록한 후,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출입국심사 SES(Smart Entry Service)를 이용하면 입국 심사장에서 줄을 서지 않고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 직원의 설명에 다들 귀를 쫑긋 세웠다. 이후 출국 심사장으로 이동해 출입국 심사 직원이 출국 허가를 내주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 봤다 후손들은 면세점 내 한국전통 문화체험관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춰 섰는데 고운 빛의 전 통 한복을 차려 입은 여인들의 국악 라이브 공연과 한국 전통혼례 퍼레이드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터라 그 모습이 신기했 던지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 모습을 동영상에 담았다. 인천국제공항을 둘러 본 후에 푸 집한 한식을 먹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에티오피아 후손들의 곁에서 그들을 인솔, 지도하고 있는 임주원 교수가 후손들을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종종 한국투어도 나갔었는데 오늘처럼 에티오피아 후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 어요. 제2의 인생을 한국에서 준비 중인 이들을 위해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에서 좋 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후손들은 면세점 내 한국전통 문화체험관에서도 잠시 걸음을 멈춰 섰는데

고운 빛의 전통 한복을 차려 입은 여인들의 국악 라이브 공연과 한국 전통혼례 퍼레이드에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 한국에서 희망 키워가요"

라헬 씨의 아버지와 삼촌은 1951~1952년에 강원 도 인제로 파견,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라헬 씨의 아버지는 다리에 총상을 입었으나 에티오피아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 가족이 경제 적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라헬 씨는 자동차 기술을 익히며 코리안 드림을 이루기 위해 구슬땀을

> 라헬 젤레케 데스타 (Rahel Zeleke Desta)



한국에 오기 이전과 이후 이미지가 바뀌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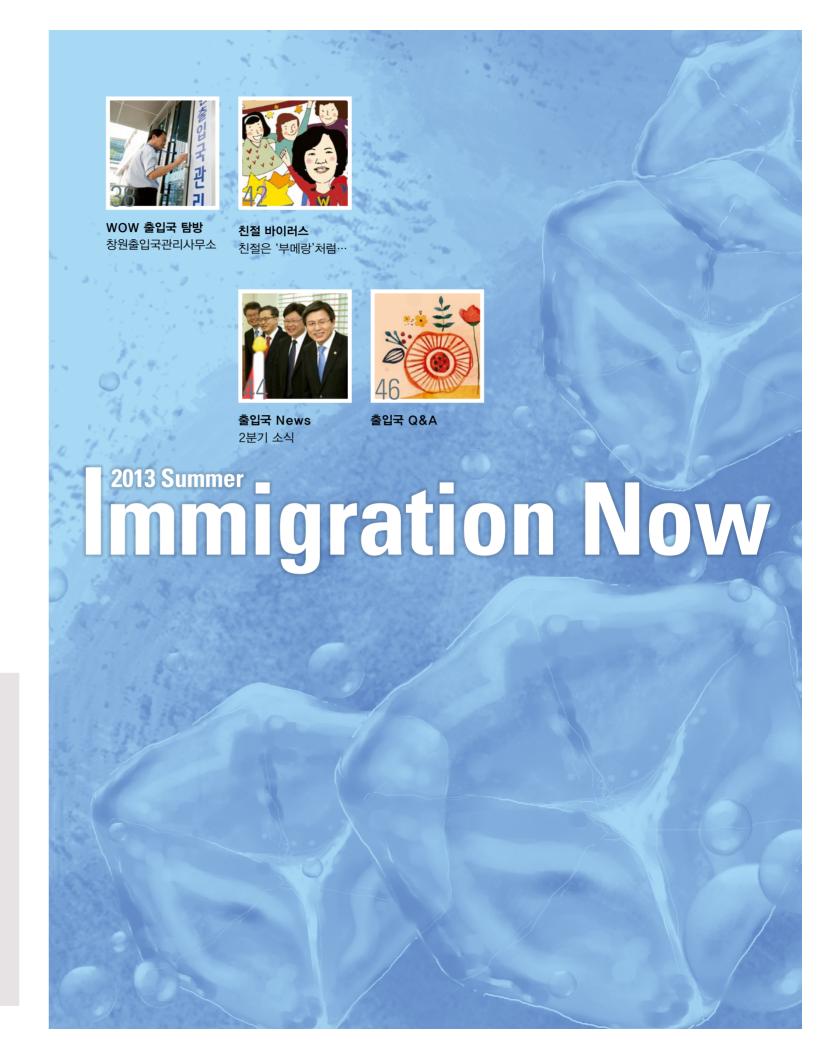
4~5년 전, 아버지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어서 이번이 두 번째예요. 하지만 아버지 에게 들은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층 빌딩과 도로 등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또 한국에는 산이 많다는 이야기만 지주 들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한국의 모습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이나믹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한국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모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히나 놀라운 기술력과 친절한 한국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한번은 서울랜드에 갔다가 길을 잃었는데 한국인들이 친 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마음을 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는 꿈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방문소감을 말해주세요.

인천공항출입국의 스마트한 시스템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저와 함께한 친구들도 하 나같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아직 에티오피아 공항의 출입국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오늘 소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제·사천·통영 등 3개 출장소와 함께 김해·밀양·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을 마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새로운 둥지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공간 효율성이 좋은 독립 청사에 시원한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요즘 웃음꽃이 만발한다. 최신 시설과 마산항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음을 풍요롭게 하면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부드럽고 환한 얼굴로 마주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둥지에서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다

새 집에서 직원 · 민원인 모두 웃음꽃 활짝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특히 여러 기관이 입주해있는 본관이 아니라 바다와 근접한 위치에 독립된 청사를 확보하여 타 기관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접근성이 용이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일을 볼 수 있고, 쾌적한 환경과 좋은 경치는 직원의 업무효율 향상은 물론 민원인과의 소통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배들이 유유히 떠가는 평화로운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께서도 너무나 좋아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불만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사무소를 찾아오신 민원인들께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좋은 경치를 보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웃으면서 일을 보고 돌아가시곤 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지니 더욱 성실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요."

고은경 반장의 말처럼 이러한 기분 좋은 변화를 체감하며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직원들이다. 사무소 환경이 개선되니 민원인들의 거센 항의와 불만표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직원이나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은 민원인이나 서로 부드럽고 환한 얼굴로 마주하게 되어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업무환경이 좋아지면서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지고, 동료애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청사 이전에 남달리 많은 공을 들였던 행정지원팀의 조의재 반장은 "원래부터 직원 간 업무협조와 소통이 원활했지만 편리하고 아늑한 신청사로 이전한 뒤로는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친밀해지는 기분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면서 뿌듯해했다.









경남지역 출입국 · 외국인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새 청사가 좋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새로운 둥지에 안착하기까지 창원사무소 직원들의 고생도 만만찮았다. 이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윤성식 관리과장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밝혔다.

"고생 안 한 직원은 없습니다. 우선은 업무의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정기 인사이동에 앞서 후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떠나자는 소장님의 지시에 따라 보름 전부터 업무시간이 끝난 뒤에도 준비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사무실 배치를 위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도면을 작성하고, 서류와 개인사물은 이삿짐센터에 맡길 수가 없으니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옮겨서 정리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토・일요일에도 출근하여 마무리한 덕에 월요일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었지요."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운데 '가장 시설이 좋은 청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사는 구청사에 비해 2.5배가 넓어진 연면적 3,180㎡에 지상 4층으로 건립되었다. 1층에는 하루 150~200건 정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민원실을 비롯해 국적실, 국적필기시험장, 증명발급실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과 유아놀이방이 설치되어있고, 2층에는 결혼이민자지원실과 국적면접시험장, 및 대기실, 기록보관실이 있다. 소장실이 있는 3층에는 행정 지원실과 심사과, 조사실, 참고인대기실, 변호인접견실, 영상녹화조사실 등이 있으며, 4층에는 보호실 및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수 심사과장은 "신청사는 보안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것도 장점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업무의 확대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 공간을 확보하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면서 "창원사무소가 업무의 외연이 확대되고, 경남지역의 출입국·외국인정책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추가 설명을 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새로운 시스템 도입

거제·사천·통영에 출장소를 두고, 김해·밀양·양산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5만 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업과 농·수·축산업이 고르게 발달한 경남지역의 특성상 외국인근로자의 취업도 많고, 일자리가 많다보니 불법체류 자와 불법고용도 비례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07명의 불법체류자와 202건에 이르는 불법고용을 적발했던 창원출입 국관리사무소는 경남지역에서 고용허가제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가 8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고용주 및 불법체류자 단속이 중요한 업무가 되었지만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인권침해 논란이 엄정한 법집행에 걸림돌이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부터 다수의 외국인근로자가 일하거나 불법체류자 고용이 의심되는 업체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상세히 설명하며불법고용을 중단하도록 하는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영남권출입국관리사무소 내 광역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에 나서는 새로운 단속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즉, 계도활동을 통해 단속을 예고함으로써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함과 동시에 반발을 줄이고, 단속을 실시할 때는 50명 정도로 구성된 광역단속반을 투입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도된 피단속자들이 저항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3월 11일에는 계도에도 불구하고 불법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시소재의 한 업체에 대해 광역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무런 사고 없이 불법취업 외국인 27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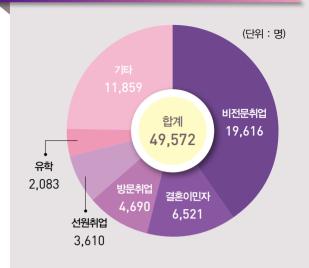
"외국인을 대할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은 3개 출장소까지 합쳐서 총 34명(본소 22명, 출장소 12명)이다. 국내 등록외국인의 5.20%가 등록된데다가 관할하는 지역이 넓고, 일반적인 체류·조사·국적업무는 물론 마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의 검색 및 심사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전 직원이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도 한국인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할 때도 한국인을 대하는 것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출입국 맨'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증팀 이주환 실무수습 직원의 말에서 그가 선배들에게 어떠한 것을 배웠고,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 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

등록외국인 자격별 현황



체류 허가별 업무 처리현황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김광효** 소장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웬만해서는 경험하기 힘든 청사 이전이라는 대사를 치루고, 끝없이 이어지는 업무에 지칠 법도 한데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과 미소를 잃지 않으며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늘

분들 중에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진심으로 보듬고, 그분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며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인권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수행을 할 것이며, 배려하고 존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통해 우리나라가 세계인과 공존하는 열린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고, 대견할 따름입니다.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는

40 | 共zone 2013 Summer

친절은 우리의 행동으로 전달된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 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일어나는 사이 '큰 고민'을 해결한 민원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들려온다. 마음의 서비스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착한 맨'을 소개한다.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가정폭력, 체류, 주거생활 등 복합적인 문제를 겪는 사할린 여성동포 두 분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저는 진실관계 조사부터 시작해 관계기관 및 사할린 동포 관련 법규 등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안내해 드렸죠. 결국 두 분을 동포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해 드렸어요. 이제 고국에서 행복한 날들만 꿈꾸시겠죠?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누군가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덕용 팀장(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광주 사증발급실은 지금 '열공' 중?

사증발급실에 찾아오시는 민원인 중에는 대학교 유학생 담당자들이 있어 요. 전 교직원이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고 또 각국에서 온 유학 생들이 늘어나는 만큼 교내 유학생 비자 관련 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 기 때문이죠. 용어도 어렵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비자 업무를 배우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요. 그래서 최대한 쉽고, 상세하게 업무 처리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교직원분들~ 시증발급실에 오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정영훈 계장(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휴대폰은 행복을 싣고~

인천공항 이용승객이 놓고 간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그 동안 주인을 찾아 준 휴대폰만도 5대! 그날도 주인을 찾아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잠금 보 안상태라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전화를 기다리는 중에도 휴대 폰 배터리가 부족해져 연락이 안될까봐 충전하면서요. 다행히 승객과 통 화한 후, 휴대폰을 택배로 부치며 제 휴대전화 번호와 택배 발송송장을 전송해 민원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제 작은 행동으로 행복한 마음을 갖게 되는 분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면 세상이 더 밝아지겠죠?



대한민국 아줌마가 도와드립니다

대기 중인 민원인이 많거나 작성 서류가 많아지면 창구 마감시간이 다 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루는 한 민원인이 문닫기 15분 전에야 창구에 도착 하셨는데 처리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셨는지 울상을 지으시더군요. 그 분 멋지지 않나요?



K.I.S CALENDAR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화제의 NEWS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이전 법무부 이전기념 현판식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주요 간부들이 지난 7월 15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동에서 청사 이전 기념 현판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기존 5동에서 1동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별관에 위치하였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정부과천청사 1동으로 이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 책본부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여야 하며, 청사 안내동에서 출입증을 발급 받은 후 출입이 가능하다. 출입국관련 민원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안내 : 국번없이 1345

모전' 입상자 24명이 수상했다.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함께 즐기는Together day! 제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과천시민회관에서 '제 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경옥 안전행정부차관과 주한필리핀대사, 주한캄보디아대사 등 역대 최다 8개국의 주한외교사절과 20개국의 영사,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재한외국인 1,000여 명이 참석하여세계인의 날을 축하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올해를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을 뿌리뽑는 원년으로 삼는 한편 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편견에 상처받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하며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과 국민이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서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대표와 김혜순 계명대 교수는 다문화·외국인정책 분야에 몸담아 사회공헌을 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16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으며 '재한외국인 생활체험수기 공

제주 축구심사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제주 입국외국인,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출국 시,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편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비스 개시 날에 맞춰 제주국 제공항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심사관을 격려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등을 거쳐 출입국심사를 손쉽게 종료하는 심사 방식으로, 지금까지 17세 이상의 국민 및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외국인으로서 사전에 스스로 얼굴, 지문, 여권정보를 등록한사람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은 한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 입국 외국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등록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동민 본부장은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꼼꼼히 살펴 본 후 "출입국심사는 국민과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국가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업무이므 로 최서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장관, 다문화 1번지 방문

황교안 법무부장관 안산시 정책현장 방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5월 2일 안산 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결혼이민 자 자원봉사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와 학생, 다문화 법질서위원 등과 함 께 시간을 보냈다. 그 자리에서 황교안 장관은 이민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 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교육에 대한 불편함과 개선점 등의 현장 의견에 귀 기울였으며, 이민자들을 격려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민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충분 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운영기관을 확대하는 등 교육 근접성을 향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산 시흥시의 등록외국인 수는 2013년 2월 28일 기준 전국 등록외국 인 92만 8.359명 중 6만 5.166명(7%)으로, 전국 4위 수준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신규 지정

부산 해운대.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받는다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외국 자본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및 동부산관광단지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부산 해운대 중동 일원에 건축 중인 해운대 리조트 중 일반호텔 객실 560여 실이 투자이민제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투자기준금액은 7억 원으로 설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일원의 대규모 관광단지인 동부산관광단지의 경우, 건설 예정인 휴양시설 중 호텔 및 콘도를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 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 부 여, 5년 후 영주(F-5)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였다.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 논의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 주최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5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주재관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글로벌 외국인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논의를 통해 법무부는 결혼이민비자 발급 시,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여부와 한국인 배우자의 부양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반복적으로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초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젊은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청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학교의 담당자도 전자민원을 통해 본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체류기간연장 등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한국과 홍콩의 상호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홍콩간 자동 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K.I.S.Information

세종로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주소 서울 종로구 서린동 64-1 서울글로벌센터 2. 3층

전화 02-731-1799

처리업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추가, 외국인등 록 등 일반 체류업무, 조사,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

New location for Sejongno Immigration Office

Address Floor 2 & 3, Seoul Global Center, 64-1 Seorin-dong, Jonano-au, Seoul

Tel. 02-731-1799

Services handled visa extension and change to status of stay, change/addition of workplace, alien registration, general sojourn services, investigation, domestic residence report for overseas Koreans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추가 유영

법무부는 7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지난해에 이어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 대상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 등이다. 자진신고 시, 자국으로 출국해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대사관ㆍ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Additional Voluntary Notification Centers for Identity Mismatch

The Ministry of Justice, has decided to add 16 more voluntary notification centers for identity mismatch across immigration offices, from July 22 through the end of the year. Those who qualify are as follows: person of identity mismatch who failed to voluntarily report last year due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person who is presents humanitarian considerations such as child custody, person who has already acquired the Korean nationality, etc. Upon filing voluntary notification, the notifying person shall depart to the country of origin to receive a new passport issued by the country of origin. Once the identity mismatch is confirmed via the issuance of new passport, a new visa may be issued by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embassy or consulate general) for reentry into Korea.

44 | #zone 2013 Summer 45



기업투자(D-8)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체류기간은 최대 얼마까지 부여되며, 연장 신청 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에 대한 체류허가는 투자금액별로 체류기간 부여 기준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20만달러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 체류자격변경허가 시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하며, 이후 신청 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체류하면서 투자활동 사실이 관련서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체류기간 2년을 부여합니다. 20만달러 이상 50만달러 미만 투자자에게는 최초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신청 시 최장 2년까지 허용합니다. 50만달러 이상 투자자로서 경제활동 능력자이며, 투자기업을 운영하면서 상시 3인 이상의 한국인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체류기간 최대 3년 이내에서 부여합니다.

I am a foreign investor who has a D-8 corporate Investment visa. What is the maximum length of stay on a D-8 visa, and if I apply to extend my stay, how long will I be able to stay additionally?

Among D-8 Corporate Investment visa holders, those who have hired at least 3 Korean nationals for a year or more, and those who have paid at least 100 million KRW taxes in the last year will be given maximum 3 years if they submit all of required documents for extension of stay.

Also, those who have invested at least 300 million KRW in a company run by a Korean national will be given maximum 2 years for his/her stay based on reviews of the company's sales and tax payment records. On the other hand, if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invested less than 300 million KRW apply for extension of stay, then they will be given a year for their stay in principle.

제나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향후 한국에서 약 2년 정도 직장생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여권이 유일한데 한국에 도착하여 바로 거소신고가 가능한가요? 거소신고를 위한 절치를 알려주세요.

영주권자(재외국민)가 거소신고를 하시려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서, 여권, 반명함판 사진 2매, 정부수입인지 1만원, 기본증명서 1통(구호적등본), 거주국의 영주권 사본 또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를 모두 준비하신 다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여권 소지자가 재입국 후 2년 (병역해당자는 1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외교부장관의 허기를 받아야 합니다. 허기를 받지 않을 경우 재입국 2년 (병역해당자는 1년) 후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am a permanent resident of Canada, and I am planning to work in Korea for about 2 years in the future. However, I was wondering if it is possible to claim the residence report when I arrive in Korea since the only document I have right now is my passport. Can you please tell me about the residence report procedure?

If a permanent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overseas Korean) wants to report his/her place of residence in Korea, he/she must bring a Domestic Residence Report form for overseas Korean, his/her passport, two standard-size photographs (3cm x 4cm), 10,000 KRW revenue stamp, one copy of Basic Certificate (previously known as Certified Copy of Family Register), one copy of Family Relation Certificate, one copy of his/her Cancelled Resident Registration, one photocopy of his/her Permanent Resident card or a document proving that he/she has stayed in a foreign country for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to a local immigration (branch) office.

에터오피아 연수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해 한국에서 저는 맛은 하는 눈을 보고 아이처럼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던 모습이 艾工剂 芒门 岁州 17H元0 지坎네丘. 한국의 무더위에 적응하는라 다들 교생이 많죠? 하지만 디건부들이 문화자이기 적상해가하기, 변화하는 오습은 보이주어 뿌듯한 아름이 됩니다. 편지는 쓰는동안 구리가 하는 기가 하나 일들이 과무처럼 쓰게니다. 함께 한국의 걱제반전을 눈으로 보고, 한국문화도 제항效立. 무엇보다 한국학생들라 어울기에 해보해 하던 미소. 나날이 한국어 실고하는 커우던 성실한 자세나 수업에 실상하던 떠너는 모습이 1개도록 기억에 남은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때는 엄마처럼, 때는 친구처럼 살뜰히 챙겨주고 싶었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됐나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좋은 주역라 명범이 되었기를 바라며. 1302 E. Fit पार्टा 41 मेरा मेराना अर्च 4 % प्राचित केंपर. 그 동안 타국에서 과정 않았더다. 더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는 항제하다기를 기념하는 AIR MAIL 임주위